

건설공사 관련 주요 제도의 실태와 개선 방향

국내 건설산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도의 양적 성장을 달성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안전 사고 빈발, 대형 시설물 붕괴가 잇따르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건설 공사 관련 주요 제도들이 대부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진입 제한에 치중한 반면, 품질 및 안전 관리의 책임에 소홀하였고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제도 운용 방식으로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측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WTO 체제의 출범과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내 건설 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해외 건설 시장의 문호도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과거 폐쇄적인 시장 구조에서의 보호 위주의 산업 정책 시행이 불가능하고 외국의 건설업체와 경쟁하는 무한 경쟁 시대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이루어진 불필요한 진입 장벽, 기업 규제 등은 철폐하는 반면 품질 관리, 안전 관련 기준, 소비자 권익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건설 공사 관련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향후 건설 공사 관련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 공사 단계별로 제도의 실태와 개선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 공사에 관한 주요 제도들을 시공자격제도(면허 등), 입찰계약제도, 하도급제도, 감리제도 및 사후관리제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제도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파악해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 현장과 정부의 건설 정책을 내실 있게 접목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 건설 공사 관련 제도의 입문서로서 향후 심도 있고 구체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